

스톰테크 (352090)

IPO Update: 배당수익률 6.5% 예상

3Q25 Review: 영업이익 38억원(YoY +4.6%, OPM 20.0%)

3Q25 매출액 190억원(YoY +9.0%), 이익 38억원(YoY +4.6%, OPM 20.0%)로 고마진 동반 외형 확대를 지속했다. 본업인 ①정수기 부품 판매업(매출 비중 92%)의 경우 코웨이, 쿠쿠홈시스 등 주요 고객사의 렌탈 판매량 호조 등 성장 연동해 매출액 179억원(YoY +9.0%), 이익 47억원으로 전사 실적 견인했다. 9개월 누적 기준 매출액 499억원(YoY +6.3%)으로 연초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YoY +3% 달성 위해 순항 중이다. 반면, 종속회사 ②코애펜테크는 이익 -5억원(QoQ 적자확대)으로 5개 분기 연속 적자 기록했다. 본업과의 시너지 부재라는 인수 당시 평가와는 별개로 근본적인 실적 회복이 여전히 안 되고 있다. 다행인 점은 최근 수익성 낮은 라인들을 일부 정리해 3Q25 기준 CAPA를 '24년 말 대비 -59.5% 줄여냈는데, 1Q25 기준 17.2%까지 감소했던 가동률이 금번 분기 53.8%까지 회복된 만큼 최근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체질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은 고무적이다.

본업의 경우 4Q25 기준 비수기에 따른 경상적 가동률 감소로 QoQ 둔화 예상된다. 그래도 전방 완제품 업체를 판매량 호조 지속이 이를 일부 상쇄할 것이며, 9개월 누적 매출액 성장이 예상보다 컸던 만큼 가이드라인 달성은 무난히 가능해 보인다. 다만 향후 포트폴리오 확장에 있어 코애펜테크가 필요할 것이라는 사측의 입장을 재확인했기에, 종속회사의 마진 훼손 정도 줄이기 위한 본업의 외형 확대 여부는 앞으로도 중요하다.

주요 점검 사항 ①: 밸브 신공장 증설 이연. 아쉽지만 우려는 시기상조

동사는 추가적인 매출액 확대를 위해 주력 제품군 밸브의 탑라인 확대를 모색해왔다. 이에 신공장 증설 및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고자 5월 중 유형자산을 매입해 계획에 본격 착수했다. 다만 최근 해당 계획에 다음과 같은 변동 사항이 발생했다: <①설비 도입/가동/실적 반영 시기 1년 이상 이연, ②취득 공장 활용→철거/재공사>

주요 타임라인의 변동으로 인해 기존 '26년 중 밸브 매출액 본격 성장 목표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계획에 없던 철거/재공사 비용 추가 집행 등 결과적으로 아쉬움 많은 소식임이 분명하다. 다만, 무엇보다 질적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투자였고, 주요 변동 사항이 타임라인에 국한할 뿐 계획의 양적 규모와 외형 성장의 방향성은 그대로이다. 이에 치명적 충격은 아니라는 판단이며, 우려 역시 시기상조이다. 향후 계획 진척을 지켜보며, 점진적 불확실성/우려 해소를 기대해본다.

주요 점검 사항 ②: '25년 연간 배당수익률 6.5% 전망

동사는 '24년 초 발표한 3개년 배당정책에서 FCF의 30% 이상을 배당하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25년 연간 이익 체력과 11월 중 발표한 100억원 규모 감액배당 공시, 우호적인 배당 기조를 고려할 때 올해 결산배당 총액 역시 예년 규모인 40억원 지급이 무난하게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 경우 YTD +23.4%의 주가 상승에도 '25년 연간 배당수익률은 6.5%로, 이는 분명한 매력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5년 6월 이래 정책적 모멘텀 등이 촉발한 이례적인 코스피 중심 유동성 랠리에서 동사와 Peer 업체들은 호실적이 무색하게 철저히 소외되었다. 모멘텀의 부재로 수급의 눈 밖에 나버린 대가는 비교할수록 씁쓸하다. 다만, 견고한 펀더와 높은 배당수익률을 겸비한 동사의 주가는 적어도 그 하방이 매우 단단해졌다. 향후 신공장 증설 진척 및 신규 배당정책 등 주요 변화에 중점을 두고, 동사에 이전보다 더 관심 둘 필요 있겠다.

Company Brief

NR

액면가 100원
증가(2025.12.19) 3,820원

Stock Indicator

자본금	3십억원
발행주식수	2,687만주
시가총액	103십억원
외국인지분율	1.6%
52주 주가	3,000~4,285원
60일평균거래량	47,165주
60일평균거래대금	0.2십억원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6.4	0.0	-1.4	18.4
상대수익률	1.4	-6.0	-18.4	-15.3

Price Trend



FY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십억원)	48	51	55	67
영업이익(십억원)	11	12	12	12
순이익(십억원)	9	10	10	14
EPS(원)	437	480	468	534
BPS(원)	1,293	1,776	3,046	3,336
PER(배)	-	-	10.6	5.8
PBR(배)	-	-	0.8	0.9
ROE(%)	-	31.2	16.6	16.7
배당수익률(%)	-	-	3.1	8.4
EV/EBITDA(배)	-	5.6	2.3	2.7

주:K-IFRS 연결 요약 재무제표

[RA]

장호 2122-9194 hojang@imfnsec.com

[지주/ESG/Mid-Small Cap]

이상현 2122-9198 value3@imfnsec.com

1. 3Q25 Review

정수기 부품 판매업 이익 43억원(YoY +7.5%, OPM 24.1%)

본업 외형 확대 지속, 코엠테크 부진은 여전한 ‘옥에 티’

3Q25 기준 동사는 매출액 190억원(YoY +9.0%), 영업이익 38억원(YoY +4.6%, OPM 20.0%)으로 고마진을 동반한 매출 성장세를 지속했다. ①정수기 부품 판매업은 매출액 179억원(YoY +8.7%), 영업이익 43억원(YoY +7.5%, OPM 24.1%)을 기록하며 전사 실적을 견인했다. 반면, PCBA/EMS 판매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 ②코엠테크의 경우 3Q25 이익 -5억원으로 금번 분기에도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본업의 외형 확대에도 불구하고, 종속회사의 부진으로 인해 전사 이익률 훼손이 지속되는 동사의 아쉬운 상황을 다시금 확인한 분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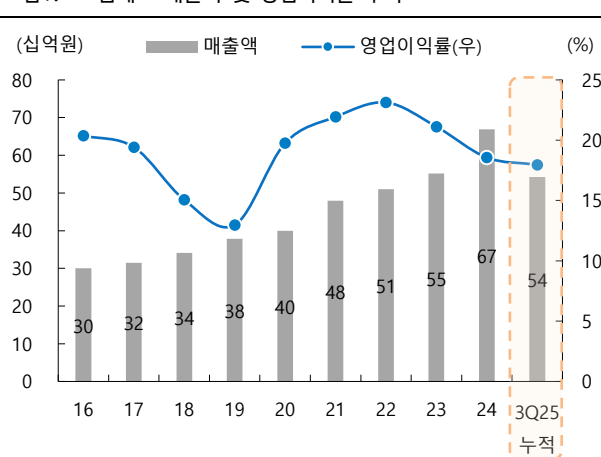
표1. 스토텍 실적 추이

(십억원, %)	1Q23	2Q23	3Q23	4Q23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2023	2024
합계													
매출액	13.4	16.0	14.7	11.1	13.7	16.9	17.4	19.0	15.0	20.2	19.0	55.2	66.9
영업이익	3.0	4.0	3.3	1.4	2.5	4.3	3.6	2.0	1.8	4.2	3.8	11.7	12.4
OPM (%)	22.4	25.0	22.4	12.3	18.3	25.7	20.8	10.3	11.9	20.6	20.0	21.1	18.6
정수기 부품 판매업 (매출 비중 92%, 3Q25 누적 기준)													
매출액	13.4	16.0	14.7	11.1	13.7	16.9	16.4	15.2	13.5	18.5	17.9	55.2	62.1
영업이익	3.0	4.0	3.3	1.4	2.5	4.3	4.0	3.1	2.5	4.5	4.3	11.7	13.9
OPM (%)	22.4	25.0	22.4	12.3	18.3	25.7	24.3	20.3	18.2	24.6	24.1	21.1	22.4
코엠테크 (매출 비중 8%)													
매출액							1.0	3.8	1.5	1.7	1.1		4.8
영업이익							-0.4	-1.1	-0.7	-0.4	-0.5		-1.5
OPM (%)							-36.6	-29.7	-45.7	-22.8	-43.9		-31.1

자료: Dart,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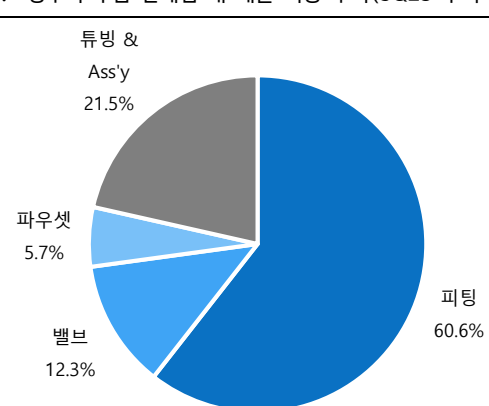
주: '24년 3분기 중 코엠테크 종속회사로 편입

그림1. 스토텍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Dart,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정수기 부품 판매업 내 매출 비중 추이(3Q25 누적 기준)



자료: 스토텍,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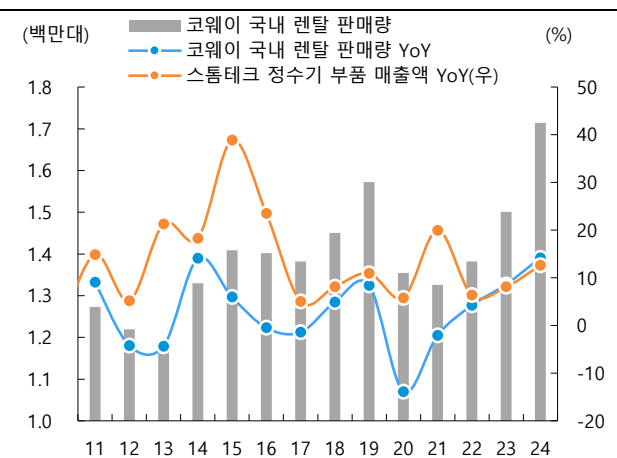
①본업: 완제품사 판매량 호조 지속 → 가이던스 달성 순항

본업인 정수기 부품 판매업의 호조는 완제품사의 렌탈 판매량 및 매출액 등이 '25년에도 꺾이지 않고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 주로 연동했다. 주요 고객사인 코웨이와 쿠쿠홈시스는 3Q25 누적 매출액이 YoY 기준 각각 +15.8%, +12.7% 증가하는 등 탑라인 확대를 지속했다. 특히 코웨이는 최근 매 분기마다 매출액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이는 얼음 정수기 신제품의 국내 판매 호조 및 말레이시아의 5개 분기 연속 판매량 YoY 두 자릿수 성장 등에 주로 기인한다.

부품 납품사인 동사는 밸류체인 상 완제품사 대비 후방에 위치하여, 계약별로 납품하는 부품의 단가(P) 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회사의 전언이다. 즉, 당연하게도 매출액 성장에 있어 부품의 단가 상승보다는 수량(Q)의 증가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3Q25 누적 기준 동사의 생산수량 및 매출액이 각각 YoY +7.1%, YoY +6.3%만큼 유사한 추이로 증가한 점 또한 이러한 관계성을 간접적으로 방증한다. 동시에 이는 최근 완제품사의 판매량 호조 기반 매출액 성장이 동사 외형 성장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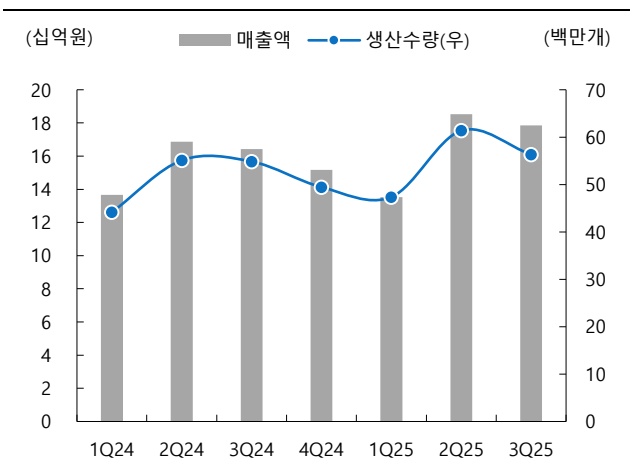
4분기의 경우 통상 비수기로, 정상적인 가동률 감소에 따른 QoQ 둔화가 예상된다. 특히 지난 10월 길었던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역시 동사 매출에 부정적이겠다. 다만 연간 기준으로는 전술한 완제품 업체들의 실적 호조 추이가 비수기 효과를 일부 상쇄 가능할 것이며, 3Q25 누적 기준 별도 매출액 499억원(YoY +6.3%)을 이미 달성한 만큼 연초 기재시한 가이던스인 YoY +3% 매출액 성장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판단이다.

그림3. 코웨이 국내 렌탈 판매량 및 스토텍 부품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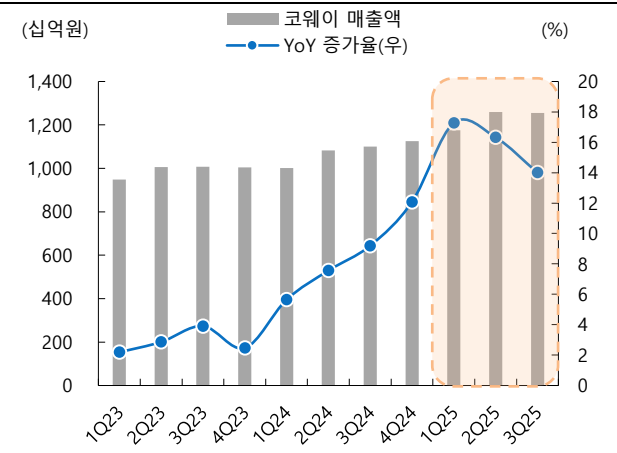
자료: 코웨이, 스토텍,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스토텍 분기별 매출액 및 생산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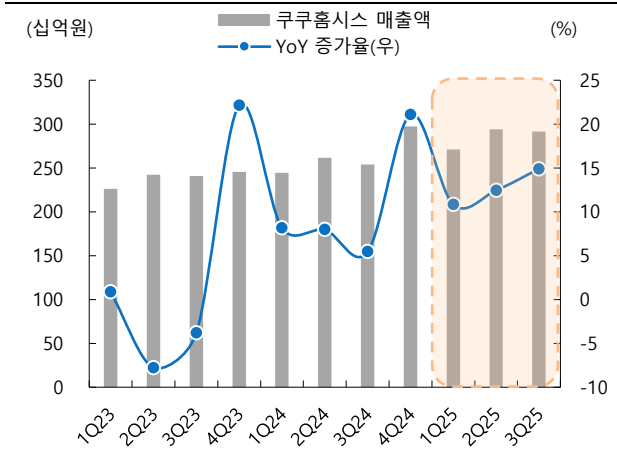
자료: Dart,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 코웨이 3Q25 누적 매출액 12,544억원(YoY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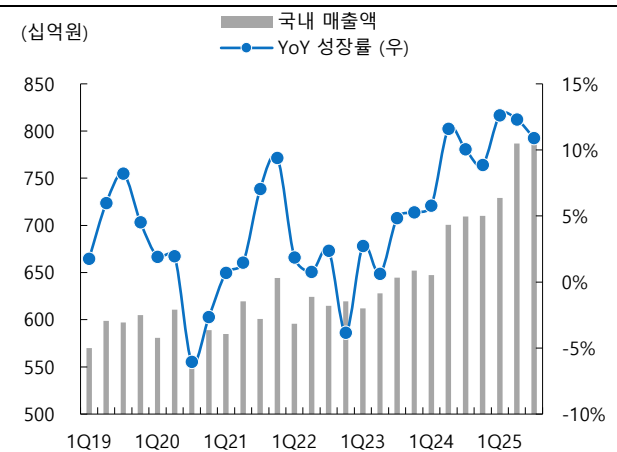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 쿠쿠홈시스 3Q25 누적 매출액 2,916억원(YoY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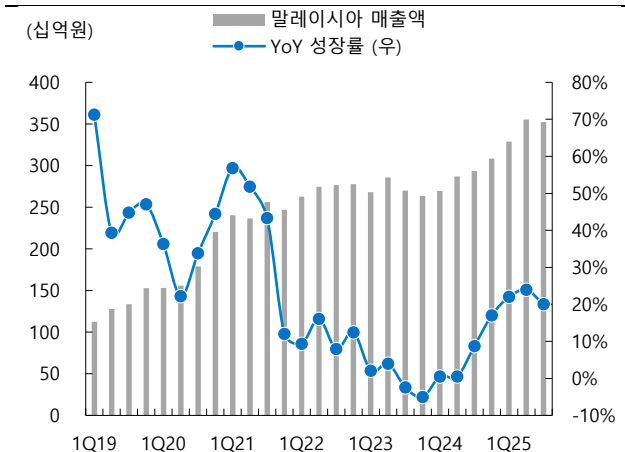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7. 코웨이 국내 매출액 및 YoY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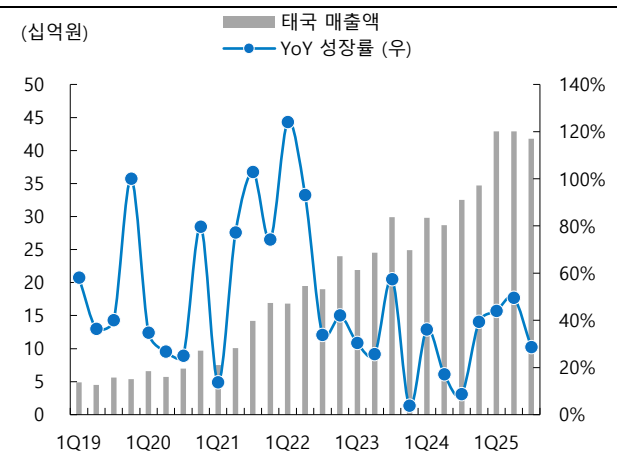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8. 코웨이 말레이시아 매출액 및 YoY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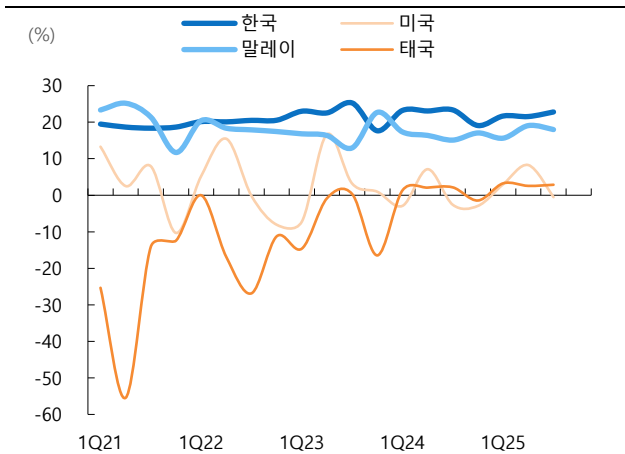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9. 코웨이 태국 매출액 및 YoY 성장률 추이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0. 코웨이 주요 지역별 영업이익률 추이: 한국/말레이 견인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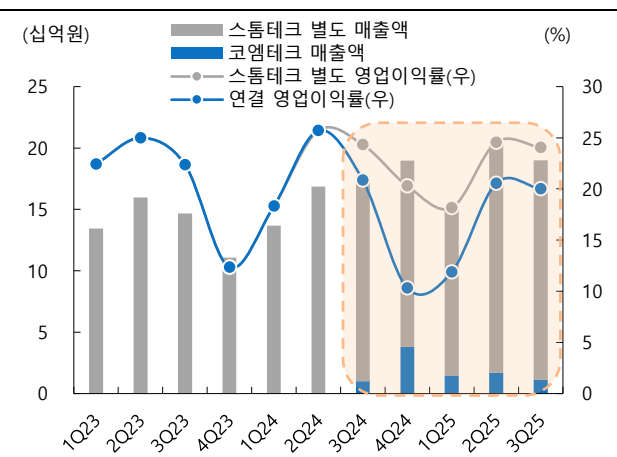
②코엠테크: 적자 상태 지속 → 전사 마진 악영향 여전

PCBA/EMS 사업을 영위하는 동사의 유일한 종속회사(지분율 100%) 코엠테크는 영업손익 -5억원(QoQ 적자확대)을 기록하며 금번 분기에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24년 9월 완전 자회사 편입 이후 현재까지 5개 분기 연속 영업적자 상태이다. 본업과의 시너지 부재라는 인수와 관련한 부정적 평가와는 별개로, 사업 자체에서 근본적인 실적 회복이 아직까지 더딘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특히 스토텍의 최대 장점 중 하나인 높은 영업이익률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특히 진하다.

다행인 점은 최근 수익성이 낮은 일부 라인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하겠다는 회사의 계획이 숫자로 관찰되고 있다는 점이다. 3Q25 기준 코엠테크의 CAPA는 '24년 말 대비 -59.5%만큼 줄여낸 결과, '25년 1분기 기준 17.2%라는 암담한 숫자까지 감소했던 가동률은 3분기 들어 53.8%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도려내는 대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체질 개선 움직임은 그 자체로 고무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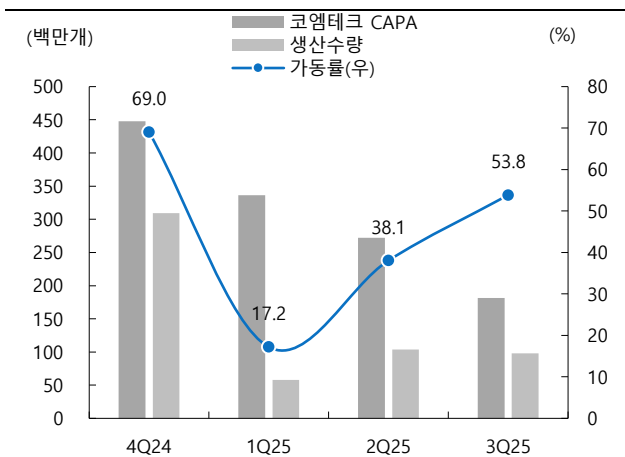
동사는 향후 가전제품으로의 사업 확대 등을 포함해 포트폴리오 확장 전략에 있어 코엠테크가 꼭 필요한 사업부라는 입장을 여전히 갖고 있다. 나아질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는 동사의 방침이 단기적으로는 확실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사 마진 악영향 정도를 상쇄할 수 있는 본업의 성장은 앞으로도 중요하다.

그림11. 코엠테크: 5개분기 연속 영업적자로 전사 마진 훼손 지속



자료: Dart,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2. 코엠테크 CAPA/생산수량 및 가동률 추이: 정상화 모색 중



자료: Dart, iM증권 리서치본부

2. 주요 점검 사항: 증설 이연 및 결산 배당

2-1. 밸브 신공장 증설 및 자동화 도입 계획 이연

글로벌 M/S 80%에 달하는 독점적 위치의 피팅의 성장 이후, 동사는 후속적인 탑라인 확대를 이끌 제품군으로 밸브를 낙점했다. 이에 신공장 증설 및 자동화 공정 도입 계획을 연중 본격 착수했는데, 최근 해당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동이 발생했다. 이는 당초 기대했던 '26년 중 밸브 매출액 확대 시작에는 차질 생기는 등 변화 전반에 아쉬움 있지만, 우려하긴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증설 계획 변동: 주요 타임라인 최소 1년 이연

동사는 '19~24년 간 총 110억원을 투입해 피팅의 자동화 공정 도입 및 탑라인 성장 견인을 경험한 이후, 또 다른 주력 제품군인 밸브의 매출액 확대를 모색해왔다. 밸브는 '24년 기준 13%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동사의 또 다른 주력 제품군이다. 당초 밸브는 피팅 대비 필요한 공정이 많고 원가율도 높아 기대 마진이 낮은 탓에 자동화 도입 대상의 우선순위로 고려되지 못했다. 허나 피팅이 어느덧 성숙기에 접어들어 향후 점진적 성장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밸브 또한 유사한 성장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고민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동사는 지난 5월 안산시 단원구 소재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면서 계획 실행을 본격화했다. 해당 계획은 '25년 설비 도입 완료 및 생산을 시작해, 3년 이내 연간 가동률 90%에 점진적으로 도달하는 목표에 기반을 두었다. 다만 최근 해당 계획에 일부 변동이 생겼음을 확인했는데, 주요 사항들은 아래 표와 같다.

표2. 스텍테크 <제2공장 증설 및 밸브 자동화 라인 도입> 계획 주요 변동 사항 정리

1. 개요		
- 2025.05.30: 스텍테크, 안산시 소재 유형자산(토지 및 건물) 취득 공시 발표 (취득금액: 110억원) - 밸브 매출액 확대 목적 <제2공장 설립 및 밸브 자동화 설비 계획> 본격 착수 - 향후 5년 내 글로벌 M/S 4.3% → 30% 달성 목표		
2. 변동 사항 (2025.12 기준)		
구분	기준 (2025.06)	변경 (2025.12)
① 공장 활용 방법	기취득한 공장 사용	철거 후 재공사
② 설비 도입 시기	'25년 말 완료	'26년 초 시작
③ 가동 시작 시기	'26년 초 시작	'27년 초 시작
④ 실적 반영 시기	FY2026 이후	FY2027 이후

자료: 스텍테크,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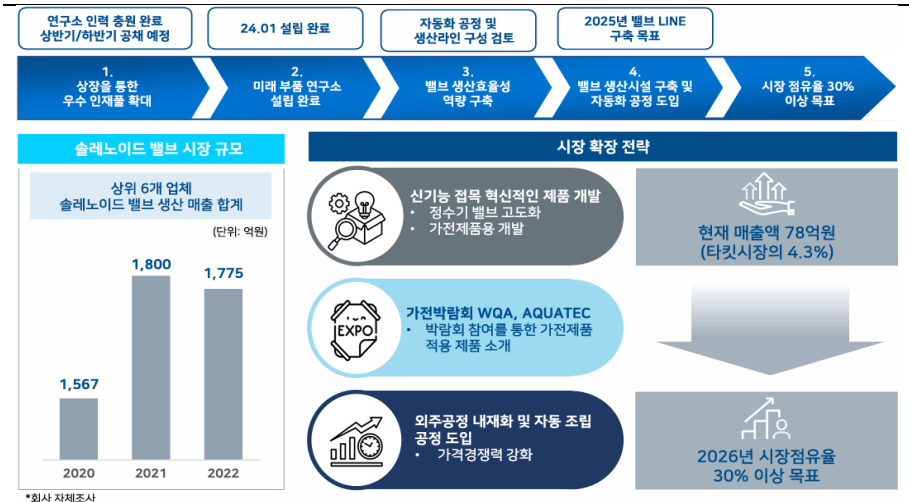
계획의 변동으로 인해 설비 도입 및 생산 시작 시기를 포함해 주요한 타임라인이 1년 이상 늦어졌는데, 이는 기취득한 공장의 철거/재공사 일정이 추가된 탓이다. 사측 설명을 빌리면, 3개의 동으로 분리된 기존 건물에 밸브 자동화 설비를 그대로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동선 상 제1공장 수준의 공정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제1공장의 경우 입출고/검사 장비가 하나의 건물에 집약된 형태로, 피팅의 생산부터 출하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기 용이하지만 제2공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동사는 2개의 동을 철거한 뒤 나머지 1개의 동에 추가적인 층을 쌓아 올리는 형태를 구상해 새로 건물을 지어 동선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철거는 완료된 상태이며, 빠른 시일 내 건축 도면 확정 및 '26년 준공을 목표로 잔여 작업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쉬움 많지만 필요했던 투자, 우려는 시기상조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은 소식임은 분명하다. 기존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는 전제를 두더라도, 금번 변화에 따른 자동화 설비 도입 시기의 이연이 확정돼 '26년 중 밸브 제품군의 의미 있는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사측에서도 증설 효과의 재무 실적 반영 시기를 최소 1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에, 의미 있는 Level-up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는 뒤로 미루어야 함이 분명하다. 그 외 공장 취득 당시 계획 없었던 철거/재공사 비용의 추가 집행과 함께, 현재까지 구체적인 건축도면 미확정으로 아직 불확실성 상존하고 있는 점 또한 긍정적이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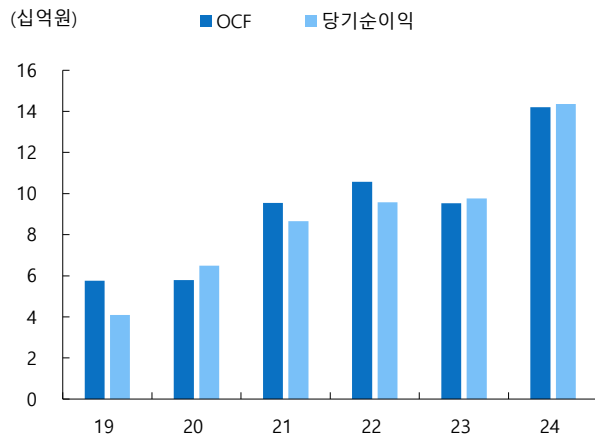
다만, 이를 감안해도 금번 변화는 치명적 충격은 아니며 우려 역시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건축 도면이 확정되지 않아 계획 변동의 효과 및 이유를 아직 와닿을 만큼 납득하긴 힘들지만, 질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정이라면 결과적으로 필요한 투자였기에 나쁘게 볼 필요만은 없다. 주요 변동 사항이 타임라인 이연에 국한한 것일 뿐, 계획의 양적 규모에 대해서는 변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지켜볼 수 있는 문제라는 판단이다. 또한 추가 비용 집행의 경우 철거(2.5억원)는 이미 확정 및 지불 완료된 상태이다. 증축에 필요한 공장 규모는 약 850평 정도로 수십억원 내외 예상되는 가운데, 연 100억원 이상 안정적으로 벌어들이는 본업의 현금 창출 능력 및 공모자금 잔액 159억원 고려 시 큰 부담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설비의 발주 역시 모두 완료돼 준공 즉시 투입 가능한 상황으로, '26년 예정된 증축 과정만 무리 없이 끝난다면 이외 추가적인 불확실성 요인도 없다. 결론적으로, 계획의 이연은 아쉬운 소식이나 질적인 외형 성장의 방향성 및 투자의 양적 규모는 계획된 그대로라는 점에 나름의 의의를 둘 수 있겠다. 향후 계획의 진척을 지켜보면서, 증축 과정에서의 추가 이연 여부 등 불확실성의 점진적인 해소 과정을 기대해본다.

그림13. 스토텍 〈제2공장 증설 및 밸브 자동화 라인 도입〉 계획 (2025.06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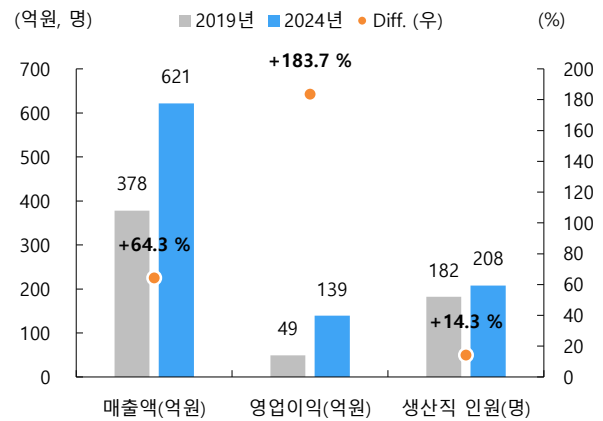
자료: 스토텍,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4. 스토텍 연간 OCF 및 당기순이익 추이



자료: 스토텍,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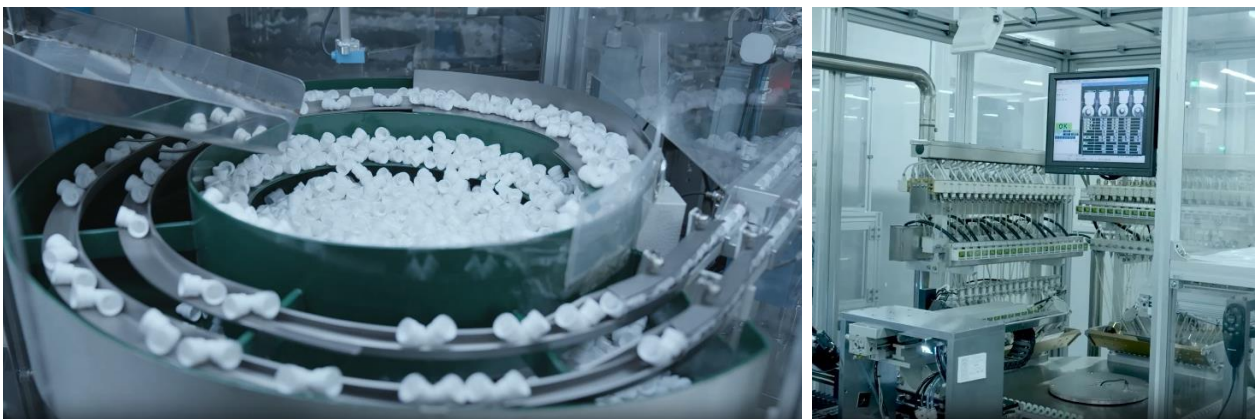
그림15. 스토텍 피팅 공정 자동화 당시 인적 비용 절감 효과



자료: 스토텍, Dart, iM증권 리서치본부

주: 매출액, 영업이익은 별도 기준

그림16.스토텍 자동화 공정으로 생산 중인 피팅(좌) 및 검사 라인(우)



자료: 스토텍, iM증권 리서치본부

2-2. 결산배당 40억원 지급 및 배당수익률 6.5% 예상

꾸준하고 적극적인 배당 기조는 동사의 또 다른 특징점이다. '25년 들어 주가가 +23.4% 상승했음에도 동사의 배당수익률은 무려 6.5%에 달한다. 전술한 본업의 현금 창출 능력 및 최근 배당에 대한 사측의 기조를 미루어 짐작할 때, 현 수준의 결산 배당 지급 및 '26년 중 신규 배당정책 발표까지 기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견고한 펀더 기반의 모범적인 배당 기조

'23년 11월 상장 이래 2개의 회계연도를 거쳐오는 동안 동사는 반기에 한 번씩 총 4번의 현금배당을 실시해왔다. '23~24년 중 중간배당으로 각각 28, 27억원을, 결산배당으로는 두 차례 모두 40억원을 지급했다. 중간배당 유무와 규칙적 시기를 물론이고, 연간 순이익 100억원 수준의 이익 체력 대비 배당총액의 상대적인 액수 또한 적지 않다는 점에서 동사 주주환원은 모범 사례에 가깝다.

표3. '23년 11월 상장 이래 스톡테크 배당 히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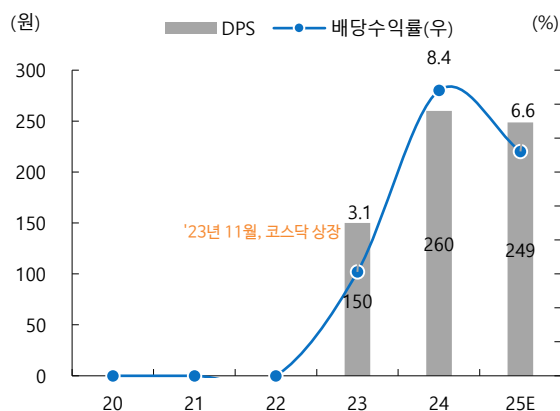
회계연도	배당 지급일	구분	배당총액(십억원)	DPS(원)
2023년	2024.04.25	결산배당	4.0	300
2024년	2024.08.28	중간배당	2.8	220
	2025.04.25	결산배당	4.0	150
2025년	2025.08.25	중간배당	2.7	100
	2026.04 (E)	결산배당	4.0 (E)	150

자료: Dart, iM증권 리서치본부

주1) FY2025 결산배당 지급일 및 총액은 예상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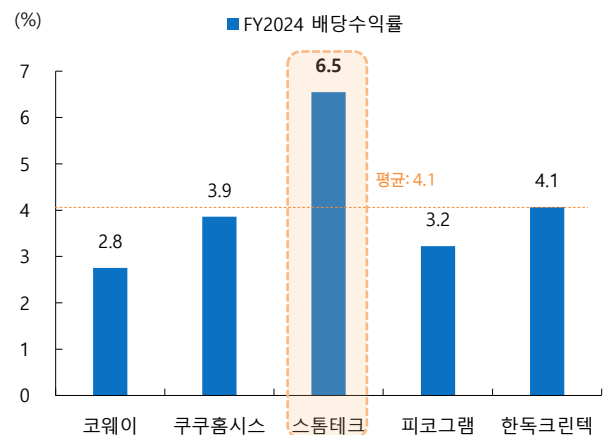
주2) 2024.08 무상증자(1:2) 실시

그림17. 스톡테크 연간 DPS 및 배당수익률 추이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8. 스톡테크 완제품/부품 Peer 대비 배당수익률 추이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26년 4월 중 FY2025 결산배당 40억원 이상 지급 전망

위 배당은 ‘24년 2월 중 기 발표한 3개년 주주환원 정책에 근거한다. 해당 정책은 FCF의 30% 이상을 배당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데, 금년을 끝으로 종료된다. 이에 당초 ‘25년 결산배당은 지급 가능성 자체는 꽤 높았는데, 최근 12월 초 주주명부 폐쇄 공시로 그 여부가 확정되어 현재 시기/규모만이 변수로 남아 있다.

시기의 경우 대부분의 업체가 통상적으로 그러하듯 3월 정기주총 이후 4월 중 결산배당 지급 가능하겠다. 규모의 경우 신뢰 가능한 히스토리가 2개년에 불과하지만, 총액 기준 예년과 같은 40억원은 무난하다는 판단이다. 이는 이익 확대를 지속해오면서 ‘25년 연간 FCF 역시 40억원을 초과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예측 가능하다. 또한, 지난 ‘25년 11월 말 발표된 감액배당 공시 발표도 높은 배당 규모 예측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해당 공시는 100억원의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내용인데,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세액부담을 줄여주는 데에 주 목적이 있다. 그러나 향후 배당 재원이 부족할 경우 금번 공시로 늘어난 이익잉여금 역시 추가적인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 동사의 설명이며, 전술한 근거들을 감안했을 때 ‘25년 결산 배당총액 40억원은 무난하다는 판단이다. 이 경우 배당수익률은 6.5%에 달한다.

물론 전술한 내용 중 일부는 사실보다는 방향성에 가깝기에,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정해진 바가 아직 없다는 점을 분명 주지해야 한다. 다만 투자자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주주환원의 중요성을 사측도 잘 인지하고 있음은 충분히 확인했는데, 이는 향후 수 년간의 배당 가능성 예측을 위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하다는 판단이다. ‘24년 기 발표한 배당정책과 유사한 톤의 후속적인 신규 정책의 발표 또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둘 수 있으며, 향후 수시 공시의 등의 수단을 통해 주주환원에 대한 동사의 우호적인 태도가 재확인될 경우 전술한 우호적 배당 기조 및 수익률을 견비한 동사의 매력은 더욱 두드러질 수 있겠다.

표4. 스토텍 FY2025 결산 배당총액 가정 및 DPS 및 배당수익률 추이 예상

시가총액 (십억원)	102.7	
보통주 발행주식수 (주)	26,872,998	
‘25년 결산 배당총액 가정	DPS (원)	배당수익률 (%)
① 40억원 (유력)	249	6.5%
② 50억원	286	7.5%
③ 60억원	323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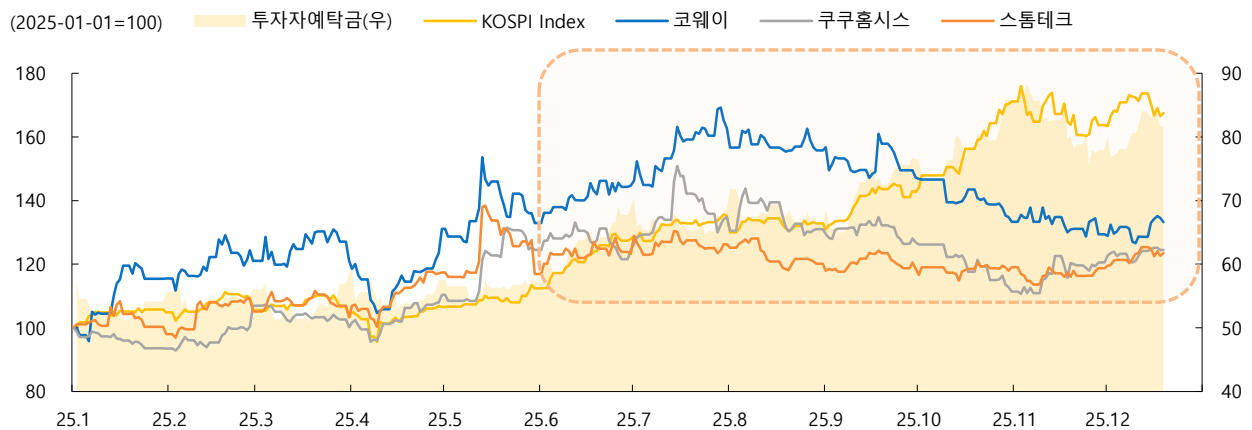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이전보다 더욱 견고해진 주가 하방

동사의 최근 주가는 비교적 정체에 머물러 있다. Peer 업체들도 상황은 비슷한데, 영업적 성과가 부진한 필터 업체인 피코그램/한독크린텍은 물론, 매 분기 실적 신기록을 경신 중인 코웨이도 그에 걸맞지 않은 주가 흐름을 지속해왔다. 반면 코스피 지수를 포함해 일부 업종 주도주들은 상대적으로 큰 수익률을 보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정책적 모멘텀 등이 촉발한 이례적인 유동성 랠리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었음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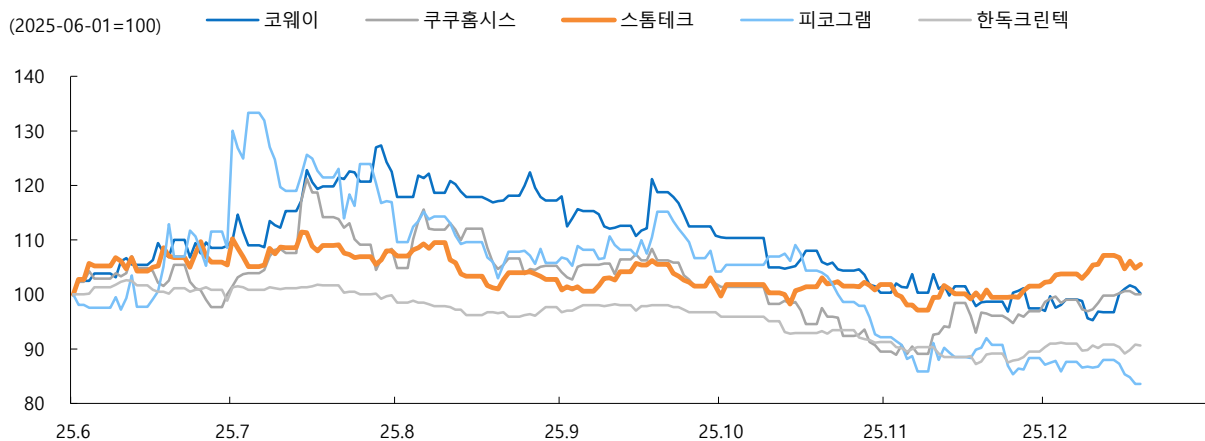
상대적인 수급의 소외는 아쉽지만, 그럼에도 고무적인 점은 Peer 업체 대비 동사의 상대 주가의 경우 그 하방이 상대적으로 견고했다. 6월 1일 대비 현 주가 기준 여타 업체들은 5~10%대의 하락을 면치 못한 동사 주가는 오히려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인상적이다.

그림19. 스톡테크 및 완제품 업체 YTD 상대주가 추이: '25년 6월 이후 시작된 코스피 중심 유동성 랠리 소외로 주가 약세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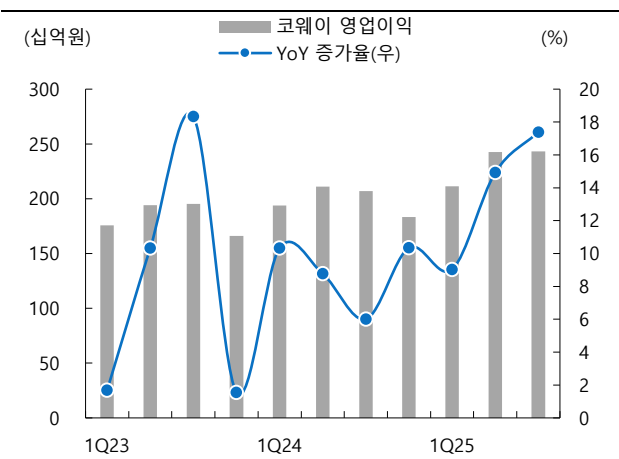
그림20. '25년 6월 이후 스톡테크 및 Peer 업체 상대주가 추이: 랠리 소외에도 동사 주가 하방 비교적 제한적인 모습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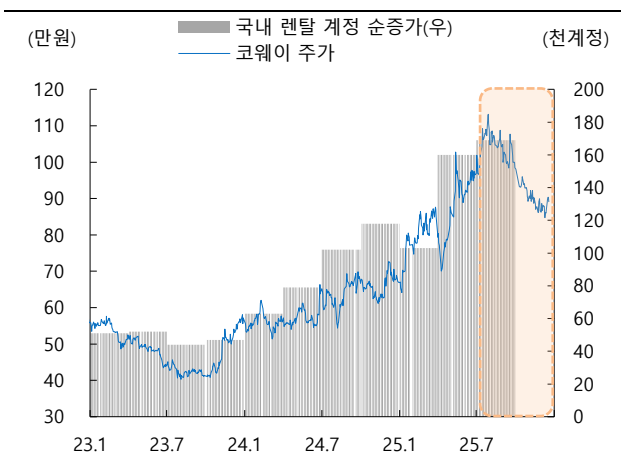
전술한 바와 같이, 의미 코웨이, 쿠쿠홈시스 등 완제품 업체들은 의미 있는 호실적 경신을 지속하며 올해에도 견고한 펀더에 이상 없음을 증명했다. 이들 전방 업체들의 판매량 및 렌탈 계정 순증가세의 낙수효과로, 동사 역시 생산실적 증가와 함께 추가 성장한 이익 체력을 보여주었다. 이에 최근 이와 동행하지 못한 주가 움직임은 이익에 대한 우려보다는, 상대적인 수급 소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에는 그 반대급부로 적어도 주가 하방은 이전보다 매우 견고해졌다. 동시에 높은 배당수익률까지 추가로 겸비한 동사의 경우 다른 업체들보다도 더 긴 호흡으로도 접근 가능할 수 있겠다. 향후 신공장 증설 계획의 추가 변동 및 신규 배당정책 발표 여부 등 단기적으로 예상되는 주요 변화에 중점을 두고, 이전보다 더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림21. 코웨이 영업이익 추이: 부진한 주가와 대조적인 이익 추이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2. 코웨이 최근 주가 약세이나 렌탈 계정 여전히 순증가세



자료: 코웨이,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표5. 스토텍 Peer Valuation (1)

(원, 십억원, 배, %)	코웨이	쿠쿠홈시스	스토텍	피코그램	한독크린텍
주요 사업 내용	정수기, 공청기 등	정수기 등	정수기 부품(피팅 등)	정수기 부품(필터)	정수기 부품(필터)
증가(원) (A)	89,100	25,700	3,820	2,395	5,520
시가총액(십억원)	6,407.1	576.6	102.7	44.5	46.3
P/E(배)	11.2	5.0	9.5	18.6	15.6
최대주주/특관인 비율(%)	25.8	70.1	71.0	56.7	49.1
DPS(원) (B)	2,630	1,000	260	100	250
EPS(원) (C)	7,841	5,460	534	386	458
배당수익률(%) (B/A)	2.8	3.9	6.5	3.2	4.1
배당성장률(%) (B/C)	33.4	18.3	47.4	25.8	53.3

자료: Bloomberg, Dart, iM증권 리서치본부

주: DPS, EPS 수치는 FY2024 기준이며, 그 외 숫자는 가장 최근 기준

표6. 스톡테크 Peer Valuation (2)

(십억원, %, 배, 원)	코웨이	쿠쿠홈시스	스톡테크	피코그램	한독크린텍
매출액(십억원)					
2022Y	3,856.1	938.1	51.0	29.4	59.1
2023Y	3,966.5	954.6	55.2	27.7	65.1
2024Y	4,310.1	1,057.2	66.9	32.1	68.2
영업이익(십억원)					
2022Y	677.4	119.9	11.8	3.3	5.1
2023Y	731.3	144.9	11.7	1.5	5.2
2024Y	795.4	164.8	12.4	2.8	3.5
OPM(%)					
2022Y	17.6	12.8	23.1	11.3	8.6
2023Y	18.4	15.2	21.1	5.5	8.0
2024Y	18.5	15.6	18.6	8.8	5.1
당기순이익(십억원)					
2022Y	458.2	114.8	9.6	3.2	5.1
2023Y	471.3	112.0	9.8	4.5	5.3
2024Y	565.6	122.4	14.4	7.1	3.6
EPS(원)					
2022Y	6,314	5,118	480	176	621
2023Y	6,495	4,994	468	243	667
2024Y	7,841	5,460	534	386	458
BPS(원)					
2022Y	31,887	31,261	1,776	1,716	6,678
2023Y	36,380	35,985	3,046	1,956	7,121
2024Y	44,478	42,011	3,336	2,342	7,355
P/E(배)					
2022Y	8.9	5.7	-	32.5	11.7
2023Y	8.8	4.3	10.5	22.1	11.3
2024Y	8.5	3.8	5.8	6.0	13.3
P/B(배)					
2022Y	1.8	0.9	-	3.3	1.1
2023Y	1.6	0.6	1.6	2.8	1.1
2024Y	1.5	0.5	0.9	1.0	0.8
ROE(%)					
2022Y	21.7	17.7	31.2	10.9	9.6
2023Y	19.0	14.9	16.6	13.3	9.7
2024Y	19.4	14.0	16.7	18.1	6.4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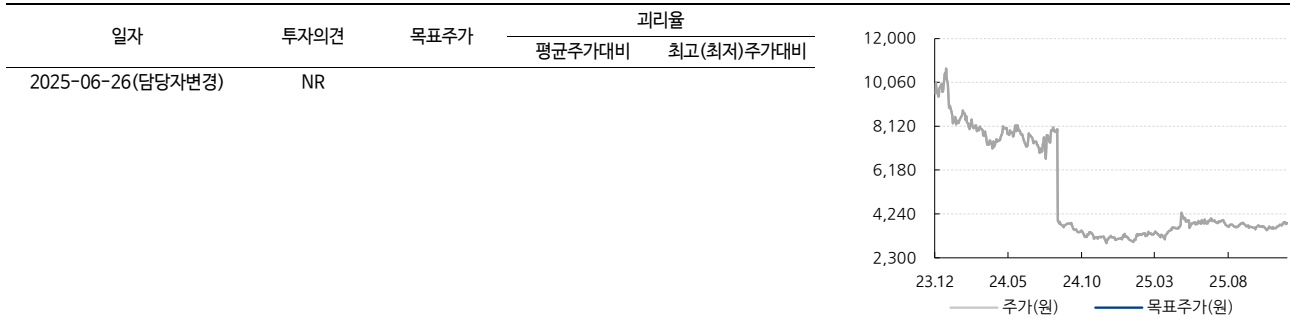
K-IFRS 연결 요약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십억원)	2021	2022	2023	2024	(십억원,%)	2021	2022	2023	2024
유동자산	19	29	74	84	매출액	48	51	55	67
현금 및 현금성자산	6	5	7	14	증가율(%)	20.0	6.3	-	21.3
단기금융자산	2	13	56	51	매출원가	34	35	40	49
매출채권	7	5	6	12	매출총이익	14	16	16	18
재고자산	3	6	5	5	판매비와관리비	4	4	4	6
비유동자산	23	23	22	40	연구개발비	0	0	0	1
유형자산	23	22	22	39	기타영업수익	-	-	-	-
무형자산	0	0	0	1	기타영업비용	-	-	-	-
자산총계	42	51	97	125	영업이익	11	12	12	12
유동부채	6	16	15	20	증가율(%)	28.9	12.1	-	6.6
매입채무	2	1	1	5	영업이익률(%)	21.9	23.1	21.1	18.6
단기차입금	-	-	-	8	이자수익	0	0	1	2
유동성장기부채	0	10	10	0	이자비용	0	0	0	0
비유동부채	10	0	0	15	지분법이익(손실)	-	-	-	-
사채	-	-	-	-	기타영업외손익	0	0	0	3
장기차입금	10	-	-	13	세전계속사업이익	11	12	12	17
부채총계	16	16	15	35	법인세비용	2	2	2	3
지배주주지분	-	-	82	90	세전계속이익률(%)	22.2	23.6	21.8	25.7
자본금	1	1	1	3	당기순이익	9	10	10	14
자본잉여금	-	-	-	-	순이익률(%)	-	-	17.7	21.5
이익잉여금	25	34	44	52	지배주주귀속 순이익	9	10	10	14
기타자본항목	0	0	36	35	기타포괄이익	0	0	0	0
비지배주주지분	-	-	-	-	총포괄이익	9	10	10	15
자본총계	26	36	82	90	지배주주귀속총포괄이익	9	10	10	15

현금흐름표					주요투자지표				
(십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1	2022	2023	2024
영업활동 현금흐름	10	11	10	14	주당지표 (원)				
당기순이익	9	10	10	14	EPS	437	480	468	534
유형자산감가상각비	1	2	2	2	BPS	1,293	1,776	3,046	3,336
무형자산상각비	0	0	0	0	CFPS	-	-	545	618
지분법관련손실(이익)	-	-	-	-	DPS	-	-	150	260
투자활동 현금흐름	-3	-12	-44	0	Valuation(배)				
유형자산의 처분(취득)	1	1	1	-	PER	-	-	10.6	5.8
무형자산의 처분(취득)	0	-	0	0	PBR	-	-	0.8	0.9
금융상품의 증감	-	-	-	-	PCR	-	-	9.1	5.0
재무활동 현금흐름	-3	0	37	-7	EV/EBITDA	-	5.6	2.3	2.7
단기금융부채의증감	-4	-	-	14	Key Financial Ratio(%)				
장기금융부채의증감	-	-	-	-2	ROE		31.2	16.6	16.7
자본의증감	1	-	35	0	EBITDA이익률	24.9	26.2	24.1	21.9
배당금지급	-	-	-	-7	부채비율	62.7	45.0	18.2	39.1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감	3	-1	2	7	순부채비율	5.0	-22.6	-64.3	-49.1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3	6	5	7	매출채권회전율(x)	7.4	8.1	17.0	7.1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6	5	7	14	재고자산회전율(x)	14.5	11.3	20.9	12.5

자료 : 스톡테크, iM증권 리서치본부

스톡테크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추이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2023년 11월 20일 코스닥에 상장된 스톡테크의 IPO 주관사로 참여하였습니다.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견]

종목추천 투자등급	산업추천 투자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종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Buy(매수): 추천일 종가대비 +15% 이상	· Overweight(비중확대)
· Hold(보유): 추천일 종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Neutral(중립)
· Sell(매도): 추천일 종가대비 -15% 이상	· Underweight(비중축소)

[투자등급 비율 2025-09-30 기준]

매수	중립(보유)	매도
91%	8.3%	0.7%